

광주 청년의 쓴소리 “표만 의식한 청년 공약 싫다”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D-12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

<1>대학원생 임정현씨

“청년 고민·부담 줄이는 사회 원해”
복합주거단지·반값 월세 등 관심
“청년 삶 도움되는 실질적 정책을”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 그게 진짜 공정 아닐까요?”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학 중인 임정현(24·사진)씨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정’과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정작 현실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다.

임씨가 말하는 공정은 단순한 경쟁의 룰이 아니라, 누구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사회 구조다.

임씨는 “누군가는 부모 도움 받아 서울에 집 구하고, 누군가는 월세 40만 원 넘는 창문 없는 원룸에서 버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냐”며 청년들이 ‘고민’과 ‘부담’을 덜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에게나 실질적인 기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인지 선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일보의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들을 만나 선택의 기준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등을 들어보는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주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치권의 실천을 촉구했다.

임씨가 눈여겨본 대선 공약도 주거·금융·정보 등 삶의 기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가 주목한 주요 정책은 △복합주거단지 조성 △반값 월세존 △든든출발자금 제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복합주거 플랫폼’ 공약은 직장인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문화공간과 함께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임씨는 “해당 공약은 ‘베드타운’(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을 만들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장 생활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들고, 도심 자체가 침체될 위험이 있다”며 “예를 들어 광주 첨단 산업단지나 나주 혁신도시처럼 직장은 있지만, 퇴근 후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지역 상권은 살아나기 어렵다. 이를 해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 마련된 선거홍보관에서 광주 하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투표·개표절차에 대한 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김양배 기자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청년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고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에 지어져야 한다”며 “인프라 마련과 현실성 있는 입주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반값 월세존’ 공약은 대학가 인근의 원룸·하숙촌 등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

정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임씨는 “무허가 원룸 같은 주거 형태에 대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 소음 문제나 주거 안전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며 “정책이 실현되면 무조건 값싼 주거 제공보다는 최소한의 주거 품질도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든든출발자금’ 공약은 대학 진학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금액을 청년 개인에게 지급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임씨는 “현재 마련된 청년 정책은 대부분 대학생 중심이 많고, 고졸이나 비진학 청년은 사실상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번 공약이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다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성상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광주경찰, 금호타이어 화재 ‘수사전담팀’ 편성... “엄정 수사”

광주경찰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소재 금호타이어 공장 내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꾸려 화재 원인과 혐의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박동성 광주경찰청 총경의 지휘 아래 형사기동대 안전화재팀을 포함한 형사 3개 팀과 강력계, 수사심의계, 과 학수사계 등 총 36명으로 구성돼 진행한

다. 수사 전담팀은 먼저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며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기계 설비 및 소방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안전관리 실태 등 검토
관계기관 합동 감식 진행

이후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식을 거쳐 관련자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정확한 화재 원인과 공장

측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오전 7시 11분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내 정련 공정에서 시작된 이번 화재는 산업용 전기 오븐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 불은 발생 이후 76시간 44분 만인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 완전 진화됐다. ▶관련기사 7면 정유철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엔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